19-W\_인물로 본 한국사 2013-12815 이동주

**<항거: 유관순 이야기> (2019)**

유관순은 역사에 무지할지라도, 한국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흔히 접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 위인이다. 영화는 그녀가 살아가던 시대, 즉, 3.1 운동 당시를 배경으로 한다. 역사적인 사실이나 맥락보다는 그녀의 옥살이와 투쟁,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이로 하여금 지금의 안녕에 잊고 있었던 우리의 아픈 역사를 일깨운다.

영화 시청 이후,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유관순이라는 인물의 ‘위인화’는 이화학당 등에 의해 다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반일의 행보를 뒤로 한 채 정치적 선전도구로써 이화를 이미지화하는 데에 소녀의 죽음이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직관적인 위화감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위인화 된 결과로써 ‘유관순’이 어느 정도의 각색이나 극화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시대 수 많은 유관순들이 존재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위인’이라 기리기에 적합한 인물상으로서, 안녕한 삶을 살아가는 후세로서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는 목적으로서의 구체적 대상으로 가치를 지닌다. 실존인물인 유관순의 생을 접하며 갖는 숭고하고 감사한 마음은 그녀에 국한되지 않는다.

분명한 객관적 사실만을 오롯이 고정한 역사가 존재할까?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주체가 존재하는 한, ‘보존’된 역사는 어느 정도의 입맛이 반영되어 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느낀 것은 그러한 주체적인 역사적 사실의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어떠한 가치가, 왜 반영되어 있는지를 맥락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